

만남

2017 1월
통권 144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하느님의 섭리를 찬미 —————	4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158~160 -----	8
기도 소개	서둘러 화해하게 하소서 -----	11
나눔	-----	12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월 기도지향》

❖ 선교 지향 - 그리스도인의 일치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기도와 형제애로 교회의 온전한 진교를 다시 이루도록 노력하고 인류 앞에 놓인 도전에 함께 맞서도록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태양은 아니지만 태양을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밤하늘을 휘영청 밝게 비추는 둥근 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달이지만 태양이 있어 달은 밝게 빛납니다.
 보름달이 떠오르면 어둡던 밤도 어둡지 않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달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있다하더라도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달은 이미 달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환하게 빛나야 합니다.
 캄캄하게 어두운 모습으로 빛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소리’에 지나지 않는 요한은 ‘말씀’으로 충만하여 밝게 빛납니다.
 ‘말씀’으로 빛나는 그의 삶이 빛을 증언합니다.

저는 태양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빛을 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밤길을 걷는 사람들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달이 되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의 빛으로가 아니라 제가 스승이요 주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예수님의 빛으로 이웃과 형제들의 앞길을 비추어주고 싶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달이 빛을 내지 못하듯이,
 예수님이 없으면 저도 빛을 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당신의 삶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밝고 빛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하느님의 섭리를 찬미(시편 33,1-9)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한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2번 “천지 생기기 전” 1,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사랑이신 주님! 이 시간 말씀과 함께 해 주소서.
- 주님!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소서.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한 분이 시편 제3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33, 1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울곤은 이들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 2 비파로 주님을 찬송하며
열 줄 수금으로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 3 그분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환성과 함께 고운 가락 내어라.
- 4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분의 행적은 모두 진실하다.
- 5 그분은 정의와 공정을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자애가 땅에 가득하네.
- 6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의 입김으로 그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네.

- 7 그분께서는 제방으로 모으듯 바닷물을 모으시고
대양을 곳집에다 넣으신다.
- 8 온 땅이 주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사는 이들이 모두 그분을 두려워하리니
- 9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생겨났기 때문이네.

1.(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2.(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3.(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말씀’을 통하여 삶의 빛을 받은 체험을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을 통독했거나 필사 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온 땅이 주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사는 이들이 모두 그분을 두려워하리니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생겨났기 때문이네.(33,8-9)

위의 시편 말씀을 읽으니 요한복음의 시작부분이 떠오릅니다.

“한 처음에 말씀(로고스)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요한 1,1),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1,3),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다.”(1,10)

앞의 성경 말씀에서 “생겨난 것 치고 말씀을 통하지 않은 것은 없다” (요한 1,3)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의 말씀으로 생겨났고,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신 하느님’ 이 온 우주의 그리고 ‘나’ 라는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따라서 하느님 자체이시기도 한 ‘말씀’ 이라는 고리를 통하여 하느님과 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 이 하느님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바닷가에 나갔다. 아들이 물었다. ‘아빠, 바다의 끝은 어디에 있어?’ 아버지는 대답했다. ‘응, 저 수평선 너머 저 멀리에 있단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빠는 깨달았다. 바다의 끝은 저 너머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였다는 사실을.” 인간은 자신이 ‘바다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다 끝에 서서는 바다 끝이 저 바다 너머에 있다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존재라면(창세 1,26), 말씀이 인간의 중심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에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알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신명 30,14)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운수를 알기 위해 토정비결을 보거나 철학관을 찾지 마시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실천해 나간다면 올해 운수는 대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을 육화’해 내는 삶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원천이며, 존재의 이유가 되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풍요로운 한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8번 “주께 감사드리자” 1,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준주성법 제 3 권

내적 위로에 대하여

교리158

제6장 사랑을 하는 사람을 시험함

1 **주님의 말씀** 아들(딸)아, 너는 아직도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자의 말 주님, 왜 그러합니까?

주님의 말씀 그것은 네가 작은 역경을 당해도 시작한 것을 멈추고 금세 위로를 찾는 데만 열중하기 때문이다. 용감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시련을 당해도 굳게 서 있으며, 원수의 간교한 꾀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순경順境에 있는 그를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과 같이 역경에 있는 그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다.

2 지혜로운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가 준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 그가 준 사랑을 헤아린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속의 정을 헤아리며, 사랑하는 이가 준 은혜보다 사랑하는 이를 높게 여긴다. 고상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은혜 위에 있는 나에게 만족한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대한 헌신이나 성인들에 대한 네 마음이 네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체험한 그 선한고도 즐거운 느낌은 은총이 현존하는 결과며, 천국의 즐거움을 미리 맛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느낌은 오다가도 또 가는 것이니 그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라. 정작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악마의 유혹을 경멸하여 물리치는 것이 덕행을 쌓고 큰 공로를 세우는 표징이 된다.

3 그러므로 너는 어떤 일에서도 이상한 환상이 너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운 뜻을 용감하게 따르고 하느님을 향한 바른 지향을 지켜라. 혹시 탈흔 상태에 이를 만큼 나의 위로를 받다가 즉시 네 마음의 본 처지로 돌아가 부질없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도 네가 속은 것이 아니다. 그런 악들은 네가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런 악들을 합당치 않게 생각하고 없애려고 힘쓰는 만큼 공로가 되는 것이지, 결코 실패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교리159

4 예로부터 원수인 마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마음에서 선에 대한 원의를 없애려 했으며, 모든 경건한 수련의 정신을 없애려 도모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즉 원수인 마귀는 성인에 대한 공경, 나의 수난에 대한 경건한 묵상,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원통하게 생각하는 마음, 자신의 뜻을 지켜 나가는 일, 덕행의 길로 힘차게 나가는 일, 덕행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려는 뜻을 네 마음에서 없애려고 애쓴다. 마귀는 좋지 못한 생각을 많이 일으켜 네 마음에 불안과 싫증을 불러일으키고, 기도의 정신을 빼 버리며, 성경을 읽을 마음을 없애려 한다. 마귀는 겸손하게 고해성사를 받는 것을 몹시 싫어하게 만들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네가 영성체를 안 하게끔 한다. 마귀가 자주 너에게 올라 미를 쳐서 속이려 할지라도, 그를 믿지도 말고 그에게 관심을 두지 마라. 나쁘고 부정한 생각이 들거든 그것을 마귀의 탓으로 돌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수치스럽고 가련하고 더러운 영아, 가거라. 그런 것을 내 귀에 속삭이니 참으로 불결하다. 고약한 유혹자야, 내게서 물러가라. 나한테는 네가 간섭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서 용맹한 전사처럼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니, 너는 그 앞에서 부끄럽게 서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말에 동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내 바람이며, 차라리 모든 형벌을 받는 것이 내 바람이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다시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시편 27,1) ‘군대가 진을 친다 하여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시편 27,3) ‘주님,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시여,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제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시편19, 15).”

5 충성스러운 군사처럼 싸워라. 그러다가 혹시 약한 마음이 들더라도 전보다 더 용기를 내고 더 많은 은총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라. 특히 헛된 자만과 교만한 마음을 항상 주의하라.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많고, 고칠 수 없는 소경이 된 사람도 적지 않다. 교만한 사람들과 미련하게도 자기 힘만을 믿던 사람들이 겪은 무서운 실패를 본보기 삼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힘써라.

교리160

제7장 은총을 겸손으로 감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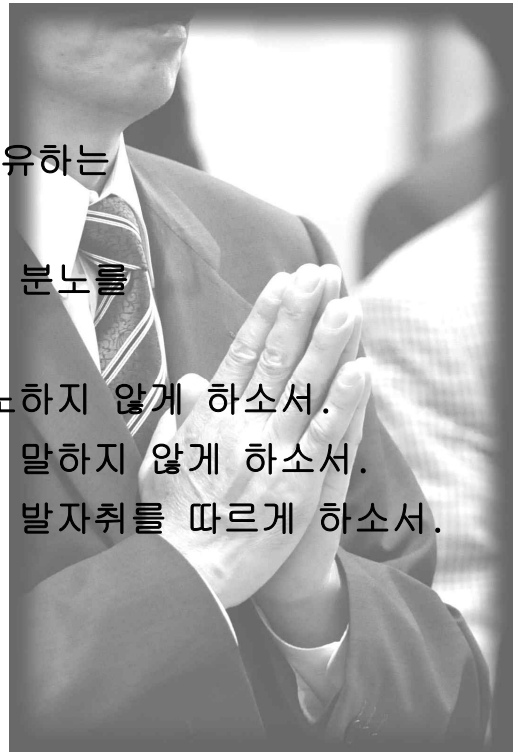
1 주님의 말씀 아들(딸)아, 네 깊은 신앙의 은총을 감추고, 그런 은총을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런 일에 대해 말을 많이 하거나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네가 그런 은총을 받은 것이 부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두려워하여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안전하다. 네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이는 오래지 않아 반대의 감정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은총이 있을 때에는 은총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라. 은총이 있고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네 영적 생활이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없이 지내게 되는 때라도 겸손과 극기를 다하여 인내하고, 기도해 게으르지 않고 늘 하는 일과를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영혼이 진보가 이루어진다. 네가 아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힘이 달는 대로, 무엇이나 잘 행하여라. 마음이 건조하고 괴롭다고 해서 할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2 많은 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금세 견디지 못하거나 게을러진다. 인생행로는 절대로 사람의 권하權下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느님께서만 그 거룩하신 뜻대로 길을 열어 주시고 위로하시니,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정도로,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당신의 뜻에 맞게 행하실 뿐, 그 이상은 하지 않으신다. 어떤 경솔한 이는 신심이 좀 있다 해서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헤아리지 않은 채 힘에 넘치는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 이는 바른 이성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마음의 욕망을 따랐기에 실패한 것이다. 또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하려다가 갑자기 은총을 잃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자기의 자리를 두었다가 비로소 자신의 힘이 없다는 것과 자신의 지위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힘이 없고 궁핍하다는 것과 제 날개만을 갖고 날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며, 나에게 안겨서 날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아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 익숙하지 못하고 능하지도 못하데 지혜로운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쉽게 속고 쉽게 상처 입을 것이다.

비안네 신부

서둘러 화해하게 하소서

나를 그 누구의 원수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영원하신 분 그리고 오래도록 머무는 자의 벗이 되게 하소서.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결코 다투지 않게 하소서.
 다툼이 있을 때는 내가 서둘러 화해하게 하소서.
 어떤 사람에게나 허물을 찾지 않게 하소서.
 누가 나를 거슬러 허물을 찾으려 다치기 전에
 내가 피하여 나로 하여금 그를 해치지 말게 하소서.
 오로지 선한 것만을 사랑하고 찾아 얻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고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잘못된 이의 불운을 결코 즐기지 말게 하소서.
 내가 그릇된 일을 했거나 설혹 입에 담았을 때는
 누구에게 꾸짖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고칠 때까지 언제나 스스로를 꾸짖게 하소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모두 해를 미치는
 그러한 승리를 얻지 않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분하는 것들을 내가 화해시키게 하소서.
 나의 힘이 닿는 데까지 내 이웃들에게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게 하소서.
 나의 이웃을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슬픔에 싸여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온화하고 치유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게 하소서.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여 내 속에서 끓어 오르는 분노를
 언제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스스로를 온화하게 길들여 어떤 처지에서나 분노하지 않게 하소서.
 누가 악한 사람인가를, 그가 해 온 악한 일들을 말하지 않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오직 선한 사람만을 알아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소서.



Telgte 성지순례 후기

오스나브뤽 공동체 허윤선 아가다

새해가 되면 언제나 마음을 다시 새로 하고 더 나은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합니다. 2016년 새해에 제가 계획했던 것 중의 하나가 Osnabrück 공동체와 함께 성지방문도 하고 영적인 나눔의 시간을 많이 가지며 하나님 안에서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미루고 미루어왔던 성지순례의 제안을 하게 되었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지난 2016년 11월 20일에 Osnabrück 공동체는 윈스터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Telgte Wallfahrt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Telgte 천주교 성지에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St. Marien Kapelle가 있습니다. 1657년에 완성된 예배당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스러운 성모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곳에서 성모 마리아를 만났으며 촛불을 밝혔으며 함께 고백하고 참회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Schmerzhaftes Mutter 고통스러운 어머니”로 불리는 성모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품 안에 안기어 어루만져지는 듯한 평온함과 안정감 그리고 감사함과 강인함의 힘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 속에서 기도를 마친 후 우리는 예배당 바로 앞에 있는 St. Clemens 성당의 11시 30분 Pilgermesse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날은 또한 카톨릭 “자비의 희년”이 마무리되는 날이기도 하여 더욱 더 의미가 깊었으며 은총도 가득했습니다. 그 날 독일 신부님께서서는 ‘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우쳐주셨는데, 왕이라 하면 우선 권력, 명예, 재물 등의 단어들이 떠오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른 모습을 지니고 계심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은 화려한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쓰고 계시며, 호화로운 옷과 금반지가 아닌 한조각의 천으로 된 찢겨진 옷과 못에 박힌 손에는 피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이들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왕의 모습이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야하고 닮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우리들은 서로 마주보고, 안아주고 손을 어루만져 주며 기쁨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서로의 눈빛을 통해, 서로의 웃음을 통해, 서로의 감싸 안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을 나누고 공유했습니다. 더욱 가까이 함께 몸을 비비며 감싸안으라고 하느님께서서는 그 날 우리에게 유난히도 차갑고 거센 바람과 추운 날씨를 선물로 주셨을 지도 모릅니다.

무심하게 보내버린 자비의 해가 마무리 된 날이었지만 그 의미와 가치가 저에게는 사실상 새롭게 시작된 날 이였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고 용서와 화해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을 새해에도 계획해 봅니다. 생각과 마음만의 믿음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믿음과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또 다른 하나의 목표로 정해봅니다. 조금 더 가까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자녀가 되고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2017년에도 Osnabrück 공동체가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로의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맑고 싶은 사람

찬미 예수님!

‘어린이’ 같은 해맑은 웃음 그리고 커다란 웃음소리와 함께 저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셨던 우리의 최종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

신부님과의 만남이 저희들에게는 너무 기쁘고 소중합니다. Humor가 뛰어나신 신부님은 하느님의 말씀이 과거에 집착된 고정적이거나 맹목적이 아닌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고 웃고 울리는 생동적인 말씀으로 저희들을 맑고 밝고 환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여야 하며, 살아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시고 우리들이 더욱 성숙한 믿음을 키워나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신부님과의 만남이 저희들에게는 너무 기쁘고 소중합니다. 맹목적이 아닌 참 신앙생활을 위한 종교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와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중심의 해석을 통해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잡아 주셨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위한 밑거름을 가득 채워주신 신부님이십니다.

‘믿음’은 기복적 신앙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하느님의 뜻과 말씀을 중심으로 믿고 찬미함을 저희들에게 늘 강조해주신 신부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하느님의 자녀 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나로부터 하느님께 고백하고, 겸손과 사랑과 용서를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방향을 일깨워주신 신부님, 감사합니다.

‘인간’으로써 또는 신부님으로써 서로 많은 시간과 생각을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열정적이시고 개방적 사고방식을 가지신 신부님과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이 웃지 못해 아쉽습니다. 신부님은 허심탄회하게 술 한 잔 기울이며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분이십니다.

‘용서’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의미와 방법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셨던 분,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을 사랑합니다.

2014년 본당피정에서 몸소 보여주신 용서의 준비와 실천은 저희들에게 많은 감명과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비안네 신부님은 저희들이 참 닮고 싶은 분이십니다.

‘기쁜 모습’으로 가실 때까지 노래와 웃음 그리고 웃음소리를 남기고 가신 우리 신부님 사랑합니다. 독일에 계시는 동안 언제부터인지 신부님의 커다란 웃음소리가 조금 작아졌지만, 한국에 돌아가시면 다시 큰소리로 크게 웃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부님이 한국에 계셔도 이제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하느님의 관심 속에서 함께 숨 쉬며 생활하고 있음을 압니다. 오스나브뤽 공동체는 어린아이와 같은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으며 신부님의 말씀과 믿음과 인간다움과 용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새해에도 기쁜 모습으로 크게 웃으려 합니다! 하하하하!



❖ 1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일	엘리사벳 앤 시튼	김 산	27일	안 젤 라 (St. Angela Merici)	남 창 순 최 희 주
21일	아 네 스 (St. Agnes)	유 곡 지 김 잔 디 정 진 아 김 혜 원 정 인 실 정 선 미	28일	카로리네 (St. Karoline) 토마스 아퀴나스 (St. Thomas Aquina)	김 계 희 백 정 선
			31일	요한 보스코 (St. John Bosco)	강 석 길

❖ 1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마 리 아	이복심(B) 신유민(H)	19일	마 리 오	김형철(O)
5일	시 메 온	김석주(H)			
8일		Giersberg Sigrid(O)	21일	아 네 스 (St. Agnes)	강나래(H) 정순자(H) 김혜경(O) 이인영(B)
17일	안토니오 (St. Antony)	문철주(H)	27일	안 젤 라 (St. Angela Merici)	김영희(H)
18일	크리스티나	김미영(O)	28일	토마스 아퀴나스 (St. Thomas Aquina)	고광완(B)

❖ 1월 성가번호

1월	입 당	봉 헌	성체	마 침
1일	258	213	180	249
8일	487	210	170	102
15일	329	220	500	62
22일	68	215	166	65
29일	25	217	176	24

❖ 1월 미사 전체 봉사자 ❖

1월	독서	제병봉헌	복사	카페 봉사
1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김형웅(야고보) 김정자(젬마)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정수(토마스) 곽케빈(요셉)	청년회
8일	이경규(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김잔디(아그네스) 윤예진(모니카)	주일학교 복사단	요셉 마리아회
15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허선애(임마누엘라)	배성우(도밍고)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복사단	1구역
22일	강신행(토마스) 김순임(안나)	이영원(베드로) 이정옥(크리스티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2구역
29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김치수(도밍고) 김영희(클라우디아)	이정수(토마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곽케빈(요셉) 이현묵(요셉)	신자전체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1월 27일	12월 4일	12월 11일		
계(€)	187	232.62	203.91		

❖ 자진헌납금 ❖

2016년 11.21 — 2016년 12.11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현금납부 :

방은일, 박춘실, 박귀동, 정마리아, 정정숙, 신옥희, 김형웅, 최장용, 최순남, 최승진,
김귀연, 김건, 김경미, 김민수, 이수웅, 배성우, 김용일, 우동천, 이기열, 이경규, 이정수,
이현묵, 이영희, 이석우, 이정은, 이종하, 이종지, 이공종, 이수현, 안지영, 육종인,
한선지, 현영애, 손수희, 박종래, 박성아, 진윤희, 강순행, 강신행, 민경화, 윤예진,
서세원, 심동근, 한말조,

구좌입금 :

강일남, 김대현, 김유석, 김동수, 김부남, 김진호, 김치수, 김원자, 아일링호프 정숙,
남궁 춘배, 백정선, 최성자, 최화영, 최현봉, 오옥수, 홍경영, 허두욱, 허길조, 허채열,
곽케빈, 방조 영자, 권지연, 이상봉, 이명원, 이성원, 이영원, 서유미, 김수혜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년 동안 수고하신 공동체의 모든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은 ‘존재직이요, 봉사직’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봉사직에 계신 분들에게 신자분들의 협력과 존중 부탁드립니다.

2. 1월 12일(목) 19:15에 새 주임 신부님이신 **박철현 미카엘** 신부님께서 함부르크 공항으로 오십니다. 새 신부님께 거룩한 지혜와 자비를 기도해주시길 청합니다. 비안네 신부님께서서는 그 다음 주중에 한국으로 이임하십니다.

3. 1월 29일(주일)에 고유 명절, 설미사(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4.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화를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관심 가져 주시길 청합니다.

5. 비안네 신부님 이임 인사

十찬미 예수님. 그 동안 서로 알아가고, 부딪치고, 이해하며, 용서하고, 사랑했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 안에서 만났으면 합니다.

늘 영육 간에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이해하고 아끼시길, 그리고 젊은이들을 사랑해 주시길 청합니다. 중년 가족들은 본당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신앙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의 친교와 사랑에 더 큰 힘을 쏟으시길 청합니다. 청년분들은 서로의 목적을 존중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더 각별히 응답하시길 청합니다.

또 뵈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합시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31
2. 12월 브레멘공동체 기도모임이 하루 앞당겨 12월 20일 오후 3시에 서아우스구시티노/젤뚜르다 가정에서 가지겠습니다. 기도모임 후에 젤뚜르다 자매님께서 전통적인 독일 성탄 음식으로 학생 자매님들과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3. 2017년 1월7일 브레멘 정기 미사가 신부님의 이임으로 미사 봉헌은 없지만 17시에 Hedwig 성당 친교실에서 만나 기도 모임을 가진 후 떡국으로 새해를 맞으면서 공동체 일을 의논하고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갖습니다.
2. 매달 첫째 주 토요일 15:00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갖습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1월에는 지방 공동체 미사가 없습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 역 장 모 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각 구역장	각 구역장 참조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윤 예 진 모 니 카	0157 5483 9145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 현 목 요 셸	6011594	
			총 무	이 경 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정 경 숙 안 나	6729549	
청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1 867 2858	
			부회장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반 장	심 은 희 안 나	0157 8045 2206	

1 월 중 행 사 예 정 표

2017년도

함부르크 본당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신정	15:00 예수 성심 성당	떡국, 사목협의회
2	월	성 대 바실리오와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학자		
3	화			
4	수			
5	목	소한	꾸리아	
6	금		복음 나누기 기도회1	모임 없음
7	토			브레멘 미사 없음
8	일	주님 공현 대축일	사목협의회 청년 소공동체	
9	월	주님 세례 축일		
10	화	연중 제1주간 화요일		
11	수			
12	목		박철현 미카엘 신부님 도착	평일 미사 없음
13	금		2구역 소공동체	구역 자체 실시
14	토			오스나브뤽 미사 없음
15	일	연중 제2주일		
16	월			
17	화	성 안토니오 아빠스		
18	수	일치주간	비안네 신부님 출국	
19	목			
20	금	대한		
21	토	성녀 아네스 동정 순교자		하노버 미사 없음
22	일	연중 제3주일		
23	월			
24	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25	수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순교자 정찬문안토니오치명일(1867년)		
26	목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연령회	
27	금			
28	토	설		
29	일	연중 제4주일(해외 원조 주일)	설 연미사 15:00	만남 성당 밑 강당
30	월			
31	화	성 요한 보스코 사제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최 영 숙 데 레 사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 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한글** ◆

발행인	박철현 미카엘	gruess@hanmail.net
	본당 신부님	H.P :
편집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첫 째, 둘째 금요일 17시 30분(복음 나누기회, 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테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 H.P : 0157 5447792